

한·중 정상회담 공동선언 의미

정치·안보·경제 '전략적 동반자' 구체화

북핵 공조·사막화 방지 양해각서

여수·상하이 박람회 상호 협력도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의 25일 3차 정상회담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한중 정상이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은 큰 성과 중 하나라는 평가다.

새 정부가 한미관계를 최우선시하면서 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정상은 이날 '근근한' 우의 과시는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양국 정상이 3개월 만의 3번째 만남을 갖는 등,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최초로 재임기간 두 번째 방한 등의 요소는 양국 간의 한층 긴밀해진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해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들을 이뤘다.

공동성명에 정치 분야 5개, 경제 분야 17개, 문화교류분야 6개, 지역 및 국제협력분야 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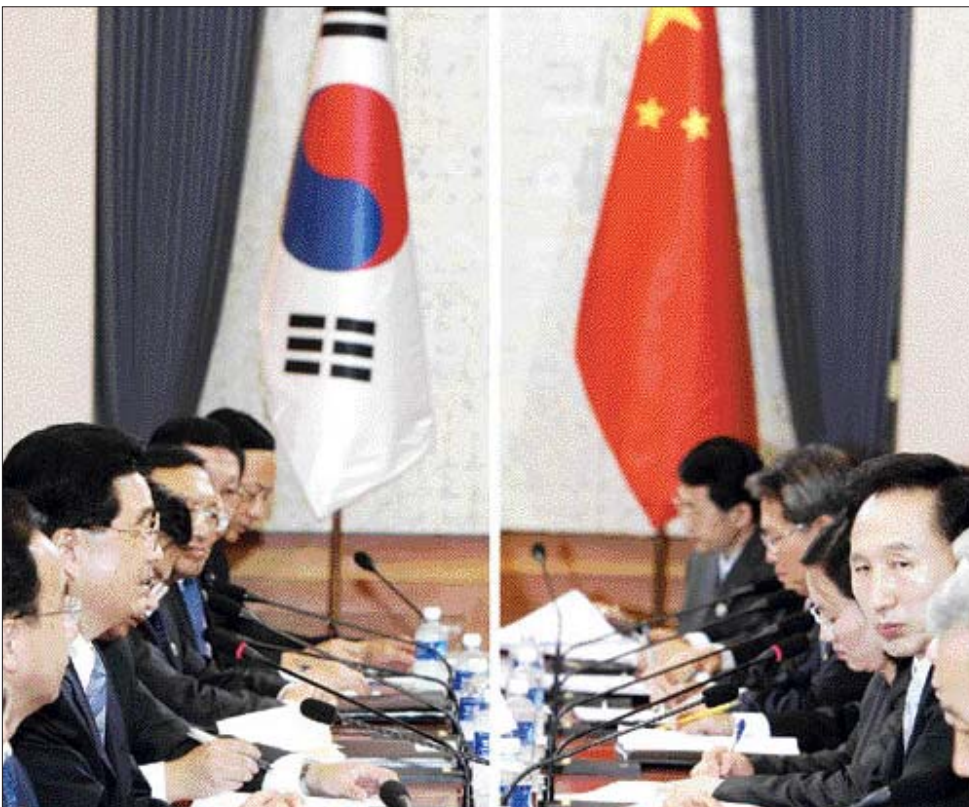
등 총 34개 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적극적 태도는 아시아의 실질적 맹주로 자리 잡기 위한 시도이자 중국의 탈(脫)북한 관계를 상징한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북한을 의식한 데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카운터파트로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교환을 이룬 점도 큰 성과다. 대북 문제에 있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과의 '보폭맞추기'를 통해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간접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지금껏 혈맹으로 인식하던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철저히 실용, 국익을 따지겠다는 후 주석의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양국 정상은 경제분야에선 2천억 달러 무역액 달성 목표연도를 오는 2010년으로 앞당기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적극 검토하며,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관한 상호 협력도 약속했다.



이명박(오른쪽)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각각 상대국 국기를 배경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 가운데 꼭 짚어볼 17개가 경제 분야에 집중된 점은 양국관계가 경제를 주축으로 해 발전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이 이날 에너지 절약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운영·유지 협

력에 관한 양해각서, 첨단기술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인적·문화교류 분야에서 양국이 사증관리화 조치 등을 통해 연간 600만명 수준인 인적교류를 가일층 확대하고 한중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키로 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중, 6자회담 협력 강화

중 중재판 북핵 돌파구 열릴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25일 정상회담은 6자회담 차원에서 기대되는 외교 이벤트였다.

북핵 검증이라는 고비에서 주춤하고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그동안 베이징 올림픽에 발이 묶여있던 데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게 외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양국 정상은 회담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사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고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제출한 핵 신고서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북한과 미국간 협의에서 진전을 이취 6자회담 차원의 이행계획서 마련이 중요하며 비핵화 3단계 진입으로 국면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중국이 조만간 북·미 양측과의 접촉을 통해 북·미 양측이 점

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절충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은 특히 북한에 대한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핵시설 불능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핵신고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검증 문제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금 해제조치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후 주석의 특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베이징 올림픽을 지원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6자회담 복원을 위한 '검증 방안' 수용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을 향해서도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모호하지만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핵 검증이행계획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간 검증 협의의 내용이다. 중국이 개입하려면 적어도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

올림픽 성공 개최 화제로 화기애애

양국 정상 "3번째 만남 의미 깊다"

■ 정상회담 분위기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정상회담에서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화제로 울리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양국간 관계 강화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스촐상 대지진을 극복하고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어제는 (베이징 올림픽 폐막 일이자) 한중 수교 16주년 기념일이었는데 거기에 맞춰 후 주석이 방한해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5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후) 불과 6개월 만에 3번째 만남을 가져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이 느낀다"며 "우리 선수단이 역대 올림픽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도 가까운 나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후 주석도 "지난 5월 이후 3번째 만남이라 의미가 깊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스촐상 지지 피해 때 진지한 지원을 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후 주석은 또,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각계의 지지로 베이징 올림픽이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며 "한국 선수들이 훌륭한 수준의 경기력을 발휘해 금메달 13개를 비롯해 총 31개의 메달을 딴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아울러 "수교 16주년 동안 양측의 노력으로 양국관계가 각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뤘다"며 "양국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중영사사무소 총영사관 승격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의 광주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본보 8일자 2면)시키기로 한에 따라 지역 한중간 문화·경제 교류 확대는 물론 광주의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측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광주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광주 영사사무소가 빠르면 올해 안에 총영사관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중국의 주한 총영사관은 부산에 이어 광주가 두 번째로, 광주 총영사관은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의 대(對) 중국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외교통상부와 중국 정부는 아울러 광주 총영사관 개선을 위해 관할 지역과 업무 등에 대해 협의

해왔다.

광주 영사사무소가 총영사관으로 승격되면 문화·경제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총영사관은 기능면에서 자국민 보호와 비자발급 등 영사사무소와 비슷하지만 공관의 격이 한 단계 높아 다양한 문화 교류와 친선 행사, 국제회의와 교류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내에서 광주의 지명도가 더욱 높아져 도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시 남구청 역시 관내에 있는 영사사무소가 총영사관

다양한 문화 교류·국제회의 등 활발 중국내 광주 지명도 한층 높아질 듯

으로 승격되면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가인 정월성 선생 기념사업 등 문화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광주 4천500명을 포함 호남과 제주권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1만2천여명, 호남·제주권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내 자치단체는 광주우시를 포함 25개 도시에 달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중국 정부와 외교통상부에 광주 영사사무소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해 3월 영사사무소가 개설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